

산유국의 생산능력 확장과 유가의 향방

이 자료는 일본의 중동경제연구소 연구주간
小島眞씨가 작성, 월간「석유」지에 게재된 것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1.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1) 4가지 에너지 수급전망

세계의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은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1983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중에 발표되어 왔던 IEA의 장기 수급전망은 1992년에 공표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IEA의 사무적인 이유 때문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석유 에너지 정세가 변함에 따라 IEA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는 전환점에 서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IEA 전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1991년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전망은 내용적으로는 IEA 전망과 동일하다. 다음에 국제적인 석유회사의 사례로서 Conoco와 Shell의 전망을 꼽는데, 이들 네가지 전망에는 두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2000년까지의 1차에너지 증가율을 약 2%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중에서 석유의 세어는 완만하나마 저하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향후 어떤 에너지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①천연가스의 세어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②원자력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

서 공통되고 있다.

(2) 유가전망

한편 유가전망에 있어서는 IEA와 미국 에너지부 예측은 모두 2000년까지 실질가격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배럴당 30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Conoco는 완만히 상승해서 배럴당 22~23달러로 예측하고, Shell은 80년대 후반에 불수있었던 것처럼 불안정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 예측에서는 모두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 전망에서는 왜 이처럼 차이가 생기는가를 검토해보면 그것은 향후 석유수급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은 완만하게 저하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공통적이지만, 중동 이외의 공급원은 향후 점차 줄기 때문에 소비국은 중동석유 의존도를 더욱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 및 걸프전을 발생시킨 걸프지역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유가 상승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 IEA 및 미국 에너지부의 견해이다.

이에 비해 Conoco 및 Shell의 견해는 중동 의존도

와 정치적 불안정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변동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 때처럼 가격이 폭등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수준을 유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4가지 대표적인 유가 예측

(1) 석유가격 및 원단위의 추이

'80년대 후반 이후의 에너지 가격 추이를 보면, 실질 가격으로는 1차 석유위기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하락한 것이 분명하여, 석유가격도 마찬가지로이다.

동시에 1차에너지 소비의 原單位도 완만하게 저하되었으며, 석유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력은 전혀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 완만하지만 상승했는데, 이는 IEA의 연례보고서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개도국을 포함해서 향후 세계의 전력 공급, 즉 발전 형태라든지 송전시스템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IEA의 지적이다.

(2) IEA의 에너지 수급전망

IEA는 2005년까지 세계의 1차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했는데, 비교적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간주되는 2000년까지의 증가율은 2.2%이다. 그 중에

IEA의 1차 에너지 수급전망

(단위 : 석유환산 백만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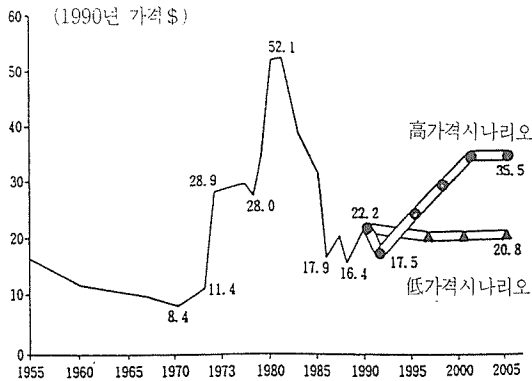
	1989	1995	2000	2005
O E C D 계	4,044	4,459	4,676	4,976
고 체 연 료	972	1,022	1,127	1,254
석 유	1,782	1,930	1,920	1,974
천 연 가 스	774	920	1,016	1,102
원 자 력	406	459	475	495
수 력, 기 타	110	128	138	151
구 소 련·동 구	1,875	2,154	2,393	2,706
고 체 연 료	604	602	607	642
석 유	537	616	665	710
천 연 가 스	635	818	969	1,168
원 자 력	74	90	121	152
수 력, 기 타	26	29	32	34
개 발 도 상 국	1,991	2,579	3,164	3,838
고 체 연 료	813	991	1,199	1,468
석 유	829	1,107	1,317	1,462
천 연 가 스	249	351	484	713
원 자 력	26	36	44	44
수 력, 기 타	73	94	119	151
세계 계 (바이오 제외)	7,910	9,192	10,233	11,521
고 체 연 료	2,389 (28.2)	2,615 (26.8)	2,933 (27.1)	3,363 (27.8)
석 유	3,148 (37.1)	3,653 (37.4)	3,902 (36.1)	4,147 (34.2)
천 연 가 스	1,658 (19.6)	2,089 (21.4)	2,470 (22.8)	2,983 (24.6)
원 자 력	506 (6.0)	584 (6.0)	640 (5.9)	692 (5.7)
수 력, 기 타	209 (2.5)	251 (2.6)	289 (2.7)	337 (2.8)
바 이 오 매 스	564 (6.6)	579 (5.8)	587 (5.4)	594 (4.9)
세계 계 (바이오 포함)	8,474(100.0)	9,771(100.0)	10,821(100.0)	12,115(100.0)

<註> 괄호내는 구성비

<자료>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1990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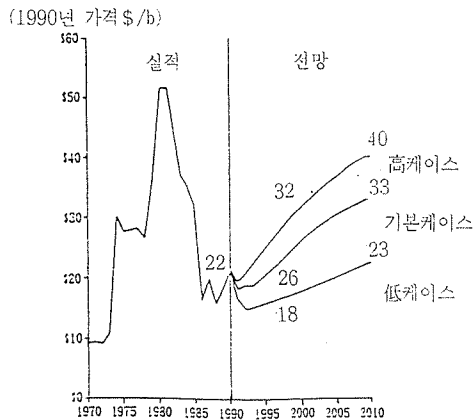
서 천연가스는 연평균 3.7%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

<그림-1> IEA의 석유 가격전망



<자료>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1990 Review

<그림-2> 석유가격 전망



<자료> DOE/IE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1992.

는 증가율을 보이고, 원자력의 세어는 거의 동일 수준을 유지하지만, 고체연료인 석탄과 액체연료인 석유의 세어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IEA의 석유수급 전망에 따르면 세계의 석유 소비는 OECD 제국의 수요가 부진한 반면, 구소련 및 개도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정세를 보면 특히 아시아 NIES, ASEAN 각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연안지역에 필적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 및 파키스탄도 경제의 문호개방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는 지금까지 소련의 석유에 의존해 왔으나, 공급이 두절됨으로써 에너지 조달이 매우 곤란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정유공장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증동원유를 수입해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것 또한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IEA에 따르면 개도국의 비중은 1990년의 18%에서 2000년에는 2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은 일본이 60년대부터 '70년대초에 걸쳐 경험한 것처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중심의 형태를 되풀이 할 것인가 여부가 극히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발전하여 1973년의 1차 석유위기, 1979년의 2차 석유위기를 거쳐 에너지절약형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개도국들도 동

<표-2>

IEA의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 %)

	1989	1990	1995	2000	2005
세계 석유 소비	65.7	65.9	75.0	80.0	85.0
O E C D	37.5	37.6	40.6	40.4	41.5
동구, 舊 소련	10.9	10.4	12.2	13.2	14.1
개 도 국	17.4	17.9	22.2	26.4	29.3
재 고 변 동	0.2	0.9	-	-	-
세계 석유 공급	65.8	66.4	75.0	80.0	85.0
O E C D	15.9	15.8	15.1	13.7	12.2
동구, 舊 소련	12.5	11.7	11.1	11.4	11.7
중 동	16.9	17.4	24.8	28.2	32.3
여타 개 도 국	19.2	20.2	22.7	25.4	27.4
프로세스 케인	1.3	1.3	1.3	1.3	1.4

<자료>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1990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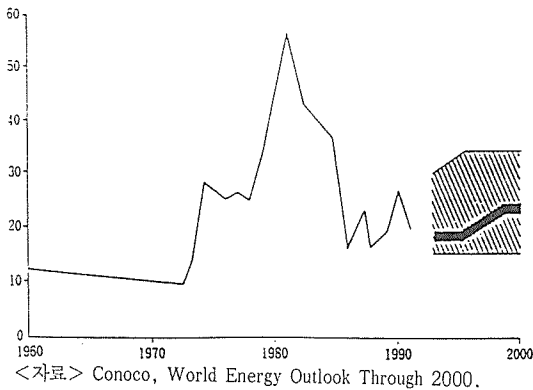
일한 산업발전 형태를 견게 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90년대에 석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3) IEA의 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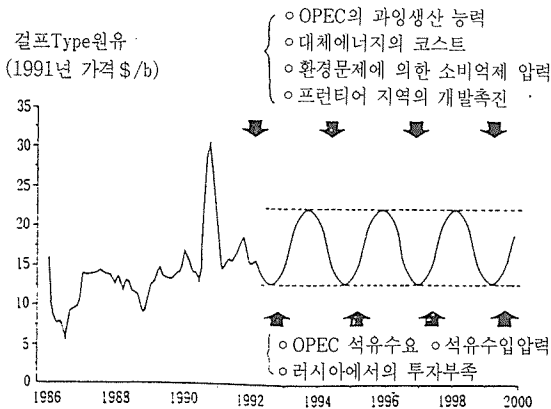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한 IEA는 두가지 전망을 밝히고 있는데, 고가격 시나리오에서는 중동석유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2000년에 배럴당 35.5달러로 상승하고, 2005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저가격 시나리오에서는 중동산유국들의 생산능력 및 상류부문의 투

<그림-3> Conoco의 석유가격 전망

(1992년 가격 \$/b)



<그림-4> London Shell의 석유가격 전망



자가 예상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2000~2005년에도 배럴당 20.8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資源量的 또는 기술적으로는 저가격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나,

OPEC의 가격 정책 및 정치환경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유가의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IEA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4) 미국 에너지부의 유가 전망

미국 에너지부의 유가 전망은 기본 케이스, 고가격 케이스, 저가격 케이스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 견해는 IEA와 매우 유사하다. 석탄 및 석유의 세어는 저하되고, 원자력은 현상유지, 천연가스 및 여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세어는 증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2000년을 향해 완만하지만 소비국측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2000년 이후엔 더욱 취약성이 증대됨으로써 유가는 상승세를 보여, 2010년엔 기본 케이스로 배럴당 33달러, 고가격 케이스로는 40달러, 저가격 케이스로는 23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5) Conoco의 유가 전망

미국 Conoco의 예측은 유가는 2000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걸프 위기와 같은 비상시는 예외로 하고 배럴당 30달러까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질 가격으로 2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 Shell의 유가 전망

London Shell은 유가가 '80년대 후반처럼 심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변동폭은 아래가 배럴당 12~13달러, 위는 25달러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Shell은 상한을 규제하는 요인으로서 다음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① OPEC의 과잉 생산 능력
- ② 석유 대체 에너지의 코스트
- ③ 환경문제에 의한 소비억제 압력
- ④ 프런티어 지역의 개발 촉진

한편, 유가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① OPEC 석유에 대한 수요의 증대
- ② 산유국의 석유 수입 확보에 대한 자제
- ③ 러시아의 석유개발 지연

Shell의 관측에 따르면 OPEC의 생산능력은 걸프 전으로 피해를 본 1991년을 고비로 금후엔 OPEC 석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점차 산유능력도 확대되어갈 것이므로 유가 상승의 직접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hell의 연구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25달러이상이 되면 베네수엘라의 중질유나 오일샌드 및 極地

석유개발의 상업화가 가능해지고 지역시장에 있어 해양의 천연가스 개발의 상업화, 또는 중동으로부터 유럽에 수송하는 것과 같은 원격 시장에서의 신

<표-3>

생산능력 확대전망

(단위 : 천b/d)

	생 산 1991	생 산 능 력		
		1991	1995 공적계획 또는 공적전망	중동연의 전망
O P E C				
사우디아라비아	8,158	8,500	10,000	10,000
이 란	3,358	3,500	5,000	4,500
이 라 크	283	500	-	3,500
쿠 웨 이 트	136	400	3,000	2,500
U A E	2,417	2,400	3,400	2,800
카 타 르	386	400	500	450
중 립 지 대	136	350	-	400
리 비 아	1,509	1,700	2,500	1,850
알 제 리	803	800	900	850
베 네 수 엘 라	2,351	2,500	3,500	3,000
인 도 네 시 아	1,431	1,550	-	1,450
나 이 지 리 아	1,867	1,950	2,500	2,300
가 과 도 르	294	300	-	370
에 콰 도 르	296	300	-	340
非 O P E C				
미 국	7,372	7,400	-	7,000
캐 나 다	1,494	1,500	-	1,500
멕시코	2,774	2,800	3,100	3,000
브 라 질	630	650	1,000	950
영 국	1,774	1,900	1,800~2,500	2,100
노 르 웨 이	1,848	2,100	2,100	2,200
이 집 트	878	900	900	900
시 리 아	478	500	1,000	700
오 만	705	750	750	750
예 멘	195	200	500	400
양 콜 라	497	500	550	650
부 르 네 이	146	140	170	170
말 레 이 시 아	652	650	650	650
호 주	544	550	-	550
베 트 남	80	80	150	150
中 國	2,800	2,800	3,060	3,000
舊 蘇 聯	10,300	9,800	-	9,200
합 計 : a	56,592	58,370	-	68,180
中 東 計 : b	19,442	20,900	-	29,600
O P E C 計 : c	23,425	25,150	-	34,310
中 東 (%) : d	34	36	-	43
O P E C (%) : e	41	43	-	50

<자료> Oil & Gas Journal, 中東經濟研究所 예측

규파이프라인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도 실용화될 것이라고 한다.

OPEC는 2차 석유위기 이후 이른바 한계 공급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후 석유수요 증가 중 非OPEC 국가들이 공급할 수 없는 부분이 OPEC의 공급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유가가 상승해서 심해나 극지의 석유 개발이 추진되고 천연가스 개발도 한층 활발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압력이 되어 한계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OPEC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Shell의 견해이다.

3. 가동률과 유가동향

(1) OPEC의 가동률

종전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유가는 OPEC의 석유생산 능력의 가동률이 80%를 상회하면 상승하고 이를 하회하면 유가도 하락한다는 것이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에 의해 밝혀져 그렇게 믿어져 왔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OPEC의 산유능력 가동률은 매우 높고 특히 현재 이라크의 산유능력은 전혀 가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서 계산하면 OPEC의 현재 가동률은 90~95%에 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약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OPEC의 가동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데도 원유가격은 왜 상승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인식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된다.

예컨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산유국에서는 자원 내셔널리즘이 크게 대두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OPEC 산유국들이 각각 자국의 생산 상한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석유생산은 하지 않는다는 석유정책을 강행했던 것이다.

예컨대, 쿠웨이트는 '60년대 말에는 350만b/d의 생산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의회의 결의에 의해 해마다 상한을 낮추어 결국 200만b/d까지 삭감하여, 자원 내셔널리즘을 세계에 강조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적으로 동조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생산상한을 850만b/d로 억제하는 정책을 택해 보조를 맞추었다.

이처럼 산유국들은 공급억제적인 정책을 취했으며, 그것이 '70년대 OPEC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후 '80년대 후반이 되자, 각국의 산유정책은 역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OPEC의 생산상한은 각국의 증산정책에 의해 항상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2) 중동각국의 생산능력 확장정책의 방향

현재 세계의 산유국들은 경쟁적으로 산유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OPEC 국가들도 '70년대의 정책을 전환하여 생산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도 많다.

OPEC 총회에서는 항상 목표가격 21\$/B로의 회복을 꾀하려는 강경파의 주장이 되풀이 되어 사우디 등 온건파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매장량에 맞춰 확대를 꾀하려는 방향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중동의 세어는 1991년의 36%에서 1995년에는 43%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OPEC 전체로는 1991년의 43%에서 1995년에는 5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각국의 자금부족 및 기술부족은 산유국의 향후 정책에 의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컨대 사우디 아라비아는 외국 석유회사의 자본은 도입하지 않지만, OPEC 국가중에서는 유일하게 국제금융시장에서 OECD회원국 대우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에는 여유가 있다 하겠다. 즉 그곳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술 및 인력을 도입하여 생산능력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 사우디의 방침이다.

한편 사우디 이외의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의 개발 조건을 개선해서 외국 석유회사와 제휴하게 될 것이다.

이란은 이란 회교혁명때 외국 석유자본을 완전히 추방했으나, 현재는 해외자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제리의 석유 정책도 크게 바뀌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가격정책에 대해 강경파로 알려진 국가들이 개발정책에서는 서방 석유회사를 끌어 들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금 및 기술의 한계 때문에 외국 석유회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비아와 알제리도 OPEC총회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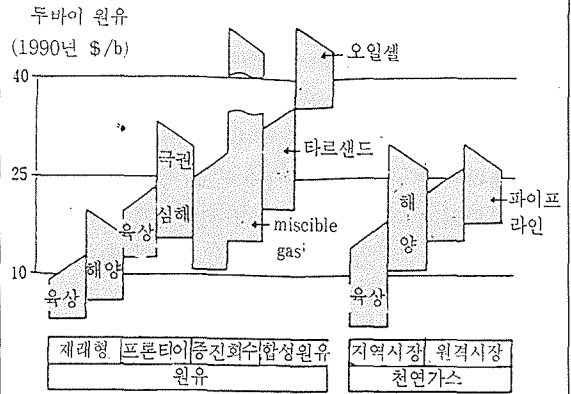
유가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산유부문에 있어서는 외국 석유회사를 영입하여 P/S 방식에 의해 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알제리는 누적채무 상환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석유 수입을 조기에 증대하고 싶다는 배경도 있으므로 P/S 방식 보다 한층 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표-3>은, 우리들이 예측한 세계각국의 1995년 시점에 있어서의 생산능력 전망인데, 이 작업을 1995년에 한정하는 것은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2000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전망이 있으나, 산유국 자신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예가 많기 때문에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산으로는 1995년에 OPEC는 3,400만b/d의 공급이 가능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0년대에 있어 OPEC는 공급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5> 현재의 기술력을 전제로 한 석유·천연가스 개발·생산 코스트



<자료> London Shell

4. 에너지 연구 개발 투자와 지구 환경문제

(1) 신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의 향방

한편 '90년대부터 2000년에 걸친 석유 또는 에너지 수급 전망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환경문제와 이

<표-4>

IEA의 에너지 연구개발비

(단위 : 1990년 가격 백만달러)

	1975	1979	1985	1990
美 國	2,676.7	6,126.0	2,809.6	2,612.0
日 本	987.6	1,657.1	2,176.3	2,539.5
이 탈 리 아	n. a.	611.3	1,197.7	792.7
독 일	1,208.2	1,525.3	1,188.8	534.4
영 국	701.4	729.2	666.6	292.2

<자료>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1990 Review.

<표-5>

에너지 부문별 정부 연구개발비 (1990)

(단위 : 1990년 가격 백만달러, %)

	미 국	일 본	독 일	이 탈 리 아
에 너 지	196.66(7.53)	2.86(0.11)	17.76(3.32)	44.23(5.58)
석유·천연가스	54.20(2.08)	71.51(2.82)	13.24(2.48)	0(0)
석 탄	796.32(30.49)	215.67(8.49)	82.93(15.52)	0.46(0.06)
원 자 력	575.76(22.04)	1,362.63(53.66)	141.85(26.54)	78.86(9.95)
신 에 너 지	113.34(4.34)	96.34(3.79)	105.21(19.69)	55.45(6.99)
핵 증식·융합	283.40(10.85)	695.95(27.41)	162.27(30.36)	154.38(19.47)
전 력·기 타	52.41(2.01)	77.09(3.04)	9.10(1.70)	108.90(13.74)
에너지 시스템	539.88(20.67)	17.45(0.69)	2.04(0.38)	350.47(44.21)
합	2,644.98(100.00)	2,539.50(100.00)	534.41(100.00)	792.74(100.00)

<자료>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1990 Review.

에 관련되는 석유대체 에너지의 공급 가능량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다.

IEA도 석유 이외 에너지의 공급가능량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IEA가 집계하고 있는 숫자는 정부관계 투자액뿐이므로, 일본처럼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가 주로 공적 자금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처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국가의 실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미국 클린턴정부의 지구환경정책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고어 부통령이

전문가이기도 해서 클린턴 정부는 부시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어 부통령의 주장은 지구환경문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발휘하여 '90년대의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이 주도권을 발휘하여 '90년대의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의 지위를 부동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에 지구관리이사회 설치, 개도국 지원 강화,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의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알아 둬시다 ■

국산 가전제품이 수입품보다 전력소비가 적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실시 분석결과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등의 국산 가전제품이 동일한 외국산 수입품보다 전력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해 9월과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냉장고, 승용차, 조명기기등을 대상으로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의 실시결과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전기냉장고의 경우 국산품이 1등급을 부여받는 제품이 6건인데 반해 수입품은 단 1건도 없었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에어컨의 경우 국산품이 1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이 24건인데 비해 수입품은 단 1건도 없었던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동력자원부에 보고한 '92년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추진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에너지소비효율을 부여한 가전제품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합쳐 모두 287

건으로 이중 1~3등급을 받은 가전제품이 약 81%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 현황을 보면 전기냉장고는 2~3등급이 전체의 82%, 에어컨은 1~2등급이 전체의 92%로 이중 1등급이 전체의 65%를 점유, 타 품목에 비해 높은 등급이 부여 되었으며 조명기기는 2~5등급이 전체적으로 높아 타 품목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등급별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1등급과 가장 낮은 등급을 비교할 때 전력소비 손실율은 전기냉장고는 약 40%, 전기냉방기는 약 34%나 되어 전기냉장고는 대당 연간 약 24,000원 전기냉방기는 90,240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